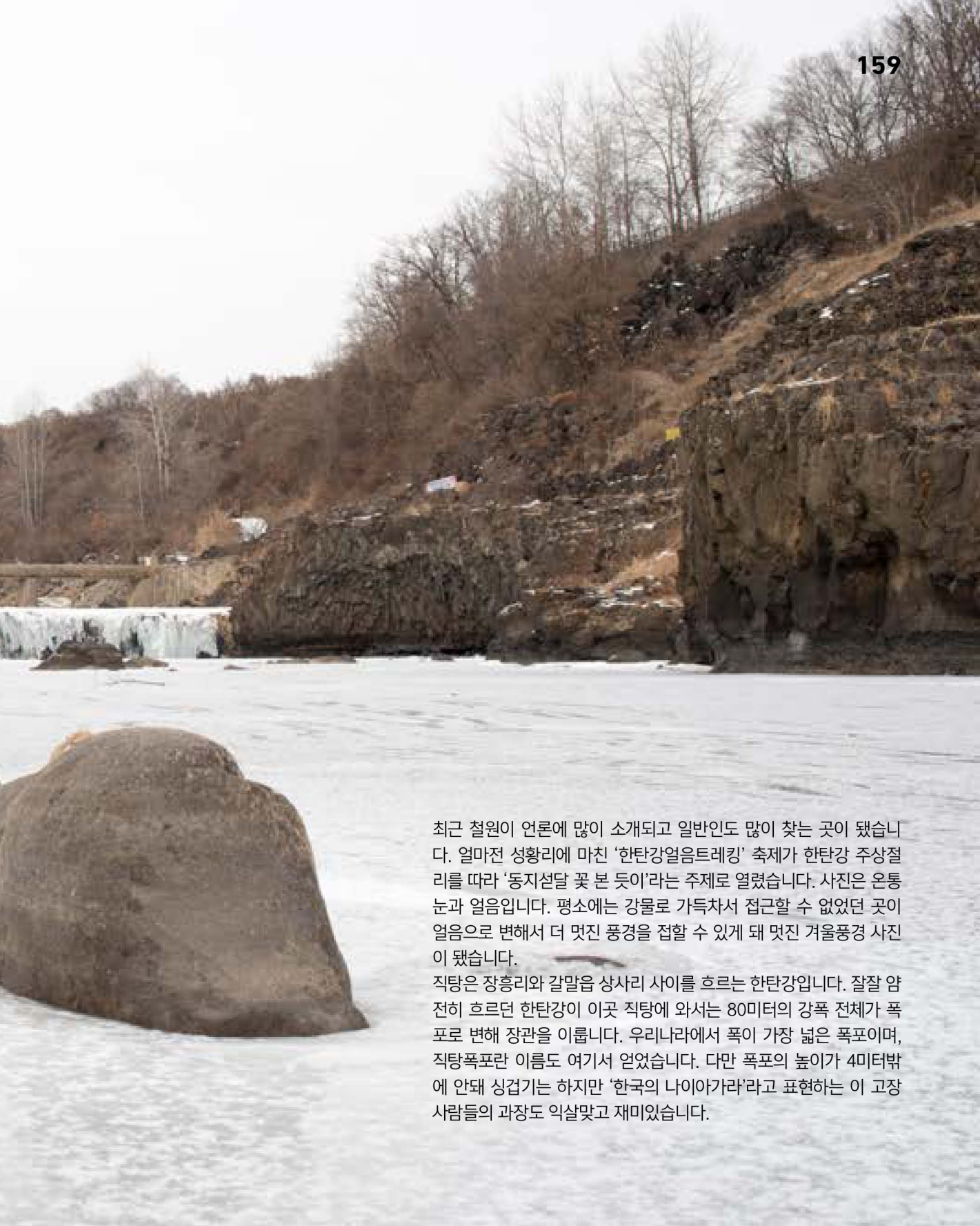


# 철원 직탕폭포

Jiktang Falls, Cheorwon

글. 박무귀 Park, Mookwi · KIRA | 건축사사무소 동림 대표, 사진작가 | <http://jjphoto.co.kr>(진주성 포토갤러리)





최근 철원이 언론에 많이 소개되고 일반인도 많이 찾는 곳이 됐습니다. 얼마전 성황리에 마친 ‘한탄강얼음트레킹’ 축제가 한탄강 주상절리를 따라 ‘동지선달 꽃 본 듯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사진은 온통 눈과 얼음입니다. 평소에는 강물로 가득차서 접근할 수 없었던 곳이 얼음으로 변해서 더 멋진 풍경을 접할 수 있게 돼 멋진 겨울풍경 사진이 됐습니다.

직탕은 장흥리와 갈말읍 상사리 사이를 흐르는 한탄강입니다. 잘잘 앞 전히 흐르던 한탄강이 이곳 직탕에 와서는 80미터의 강폭 전체가 폭포로 변해 장관을 이룹니다. 우리나라에서 폭이 가장 넓은 폭포이며, 직탕폭포란 이름도 여기서 얻었습니다. 다만 폭포의 높이가 4미터밖에 안돼 싱겁기는 하지만 ‘한국의 나이아가라’라고 표현하는 이 고장 사람들의 과장도 익살맞고 재미있습니다.